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 월호
2024

Paeonia
by Suki Kim
모란꽃 (김숙희 그림)
표지 이야기 15페이지

차 례 (CONTENTS)

한인회소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 2
앨버커키시는 건설적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 : 2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이수신 : 3
뉴멕시코 한국학교 특별활동 : 4
교육: 자존감과 독립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자 송온경 : 5
Constructive Conversations - Building Our City together City of ABQ : 6
지난뉴스: 2024년 3-4월 주요 뉴스 : 7
칼럼: 새로운 변화를 기대를 하면서 김기천 : 8
수필: 제3의 눈 이정길 : 9
선교: WCC는 왜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일까? 신경일 : 10
칼럼: 거룩한 입맞춤 나정용 : 11
수필: 그륵 할머니의 한 나정자 : 12
성경: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김민순 : 14
표지그림이야기: "우리 60살에 산티아고 순례가자" 김숙희 : 15
예배 : 대표기도문 : 16
여행후기: 자메이카 여름 이야기 송은숙 : 17
영어이야기(32) Brief New Mexico History 이상목 : 20
과학상식 : 반도체란 무엇일까? (4) 실리콘 포토닉스 이기영 : 22
뉴멕시코한인교회안내 : 25
뉴멕시코한인업소안내 : 26-28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날씨는 봄날답게 따스해 졌지만 해마다 봄이면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알러지와 감기로 고생하는 교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바람이 수그러지기에 다행이지만 그래도 건강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답게 아름답게 꽃들을 피우고 쑥, 달래, 돌나물 등 입맛을 살아나게 봄나물들로 밥상을 장식해 주고 있어서 또한 감사한 계절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3월 7일에는 6.25 참전 용사이며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셨던 Fred Cericola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정길 명예교수님과 제가 장례식에 다녀 왔습니다. 세월이 무상하여 6.25참전용사 분들이 한분 한분 소천하시기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4월에는 뉴 멕시코를 단체로 관광하시던 일행중 한명이 Roswell에서 간이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실종되셔서 관할 총 영사관과 한인회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다행히 대여섯 시간안에 경찰이 찾았지만 경각심을 깨우쳤습니다. 잠깐만... 금방이야 하면서 혼자 단독 행위를 하는것은 나이 드신 분이나 외국 여행시 무척 위험 할수 있기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누군가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점점 인원은 줄지만 어버이회 어르신들은 격주로 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하시고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5월은 1일, 15일, 29일이 모이시는 날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저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총연 임시총회에 참석합니다.

6월 23일에는 6.25 행사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어느덧 74주년이 되어가는 6.25 전쟁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잊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남의것을 탐해도 안되지만 약해서도 안된다는것을 전쟁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서남부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이 취임하는 서남부 연합회 회장은 조규자 전 뉴 멕시코 한인회장 입니다.
한인회에서 여러 행사들이 공고 될때에 교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뉴 멕시코 한인회는 교민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임원진, 이사진들은 봉사하며 일하고 있고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을 얻어 더욱 최선을 다 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앨버커키시는 건설적인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앨버커키 시장 팀 켈러(Tim Keller)와 시의원들은 앨버커키의 건축 환경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과 도시 지도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지역사회 회의인 “건설적인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의에서는 도시의 인프라, 장소 만들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지역 사회의 열망과 자금 조달 현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리즈는 앨버커키 전역의 각 시의회 지구에서 계획된 개발을 탐구하는 9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논의되는 프로젝트는 지역마다 다르며 인프라 개선, 교통 개선, 녹지 공간 계획, 문화적 랜드마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앨버커키의 공공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도록 초대됩니다. 이웃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단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RSVP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www.cabq.gov/connect-abq/events 에서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래의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로 계속>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 멕시코주 학부모 및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멕시코주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들은 대지를 환하게 비추는 밝은 태양보다는 푸른 바다가 더 그리워지는 초여름입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면 곱고 잘게 갈은 얼음과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한 신선한 과일들과 연유를 섞고 그 위에 단 팥을 부어서 먹는 팥빙수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관계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나른 해진 정신과 육체에 활기를 불어넣곤 합니다.

한국학교 아동 반 학생들은 미주 한국학교 총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 35회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 동영상으로 참가하기 위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인 반에서는 한글과 K-wave 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으로 김밥 만들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네 명의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김밥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서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과 다양한 맛을 내는 여러가지 재료들로 식성에 맞는 김밥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각의 재료들의 맛과 특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우리의 김밥이 Korean Sushi가 아니라 Kimbap으로 불러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는 5월 13일 종강식과 함께 봄학기를 마칩니다. 여름학기 동안 아동반은 없으며 성인반은 예년과 같이 6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위에 한글학습과 K-wave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www.KAANM.com에서 한국학교(Language School)을 클릭하시면 여름학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많은 식물들이 불타는 듯한 태양과 휘몰아 치는 비 바람을 견뎌내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 사고 없이 왕성한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훌륭한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학교 특별활동

학생들이 만든 핀 뱃지

동요연습시간 (남지현선생 지도)

동요연습시간

한국학교소식

한국학교 특별활동

봄을 맞이해서 화분을 이용한 학생들의 특별활동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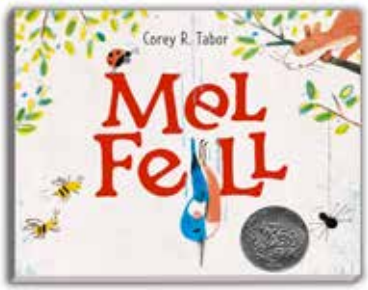
성인반의 김밥 만들기 특별 활동시간

아동도서

자존감과 독립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자

송온경
작가
아동문학평론가

자존감과 독립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자 - 2022년 칼데콧 우수상 수상작 ' 간다아아!' 를 읽고



2022년 칼데콧 우수상을 받은 간다아아!(Mel Fell) 는 킹피셔(King Fisher) 종의 아기새, 멜 (멜로디의 애칭)이 주인공이다. 엄마새는 멜과 멜의 형제들이 둥지 속에서 어느 정도 자랄 동안 밖에서 먹이를 물어다 먹이며 아이들끼리 잘 있는 지 망을 본다.

어느날 엄마새가 외출 한 사이에 멜은 비행연습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걱정하는 동생들에게 멜은 무섭다고 내 결심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첫 비행연습에 나선다.

멜은 팔짝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한 뒤 날개를 활짝 펴고 밑으로 떨어진다. 계속 하강하는 멜을 아기 부엉이를 품에 안은 부엉이 엄마가 안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다람쥐들도 멜을 붙잡아주려 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만다.

꿀벌과 거미도 멜을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달팽이도 개미들도 무당벌레도 멜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저 마음뿐이었다.
이웃들이 숨죽이고 걱정스럽게 쳐다볼 때 거의 하강을 마친 멜은 눈을 크게 뜨고 생전 처음 보는 파란 수면에 풍덩 소리를 내며 뛰어들었다. 멜은 통통한 작은 물고기를 길고 뾰족한 부리로 덥석 물었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멜은 물고기를 입에 문 채 물장구를 치며 꼬리 날개를 펴고 수면 밖으로 솟구쳐 날아오른다.
놀란 표정의 이웃들을 지나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라 나무 둥지 집에 도착한 멜이 숨찬 목소리로 외친다. "엄마! 엄마! 나 날았어요. 나 오늘 날았어요!' 그러자 엄마새가 "난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하고 멜을 껴안는다. 멜은 엄마새의 인정을 받자 기쁘게 웃는다.

코리 타보르의 이 칼데콧 수상작은 멜이라는 아기새의 도전정신과 성취를 통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코칭하는 미국 부모들의 가정 교육을 연상시킨다.

미국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집안에서 간단한 소일거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5-6세의 아이들은 식탁에 냅킨과 나이프, 포크 등을 식구 수대로 세팅하거나 자기가 먹은 그릇을 싱크에 갖다놓는 일을 한다. 또한 부모들은 학교에 처음 가는 아이들이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을 느끼지 않고 개학 첫날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 독립심을 갖는 훈련을 시킨다.

엄마새의 도움 없이 다이빙하고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오르는 멜의 모습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유태인의 격언을 연상시킨다.

멜이 물고기를 입에 물고 수면 위로 솟구치는 기세에 무당벌레가 혼비백산하며 앉아있던 곳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아기새의 힘찬 동력을 느낀다.

멜이 다이빙할 때 도와주려던 이웃들이 멜의 무사 귀환에 박수를 치며 멜을 응원하는 모습에서 이웃 사촌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엄마, 나 해냈어요 라고 날개짓을 하며 기뻐하는 멜의 모습에서, 이제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집을 떠날 준비가 된 딸을 대견해 하는 엄마새와 멜의 포옹에서, 기뻐서 날개를 펄럭이는 동생들의 모습에서 끈끈한 가족간의 유대와 사랑을 느낀다.

이 책의 작가는 요즘같은 전무후무한 시대에 자녀들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뒷바라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존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자라도록 배려하고, 이웃의 아이들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것 같다.

〈송온경/도서 미디어 전문가〉 ■

앨버커키시는 건설적인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페이지에서 계속)

CONSTRUCTIVE CONVERSATIONS
Building Our City Together

ONE ALBUQUERQUE

Tim Keller
Mayor of Albuquerque

Dear neighbor,

Albuquerque Mayor Tim Keller and City Councilors invite you to attend "Constructive Conversations," a series of community meetings to foster dialogue between residents and city leaders to shape the future of the built environment in Albuquerque. The meetings seek to bridge the gap between community aspirations and funding realities, focusing on investments that enhance the city's infrastructure, placemaking, and quality of life.

The series will feature nine sessions exploring planned development in each Council district across Albuquerque. Projects discussed will vary by district and may include infrastructure enhancements, transportation improvements, green space initiatives, cultural landmarks, and more, tailored to meet the needs of each neighborhood.

Residents are invited to join Constructive Conversations to share ideas and input that impact public development in Albuquerque. Attached is a flyer to share with members of your neighborhood. The events are free and open to the public, RSVPs are required to attend. Residents can reserve their seat at www.cabq.gov/connect-abq/events
Constructive Conversations Meeting Schedule:

Wednesday, May 1, 6:00-8:00 p.m.
District 3, Councilor Peña
Ted M. Gallegos/Alamosa Community Center
6900 Gonzales Rd SW Suite C,
Albuquerque, NM 87121

Friday, May 3, 6:00-8:00 p.m.
District 7, Councilor Fiebelkorn
Palo Duro Senior Center
5221 Palo Duro Ave. NE
Albuquerque, NM 87110

Tuesday, May 7, 6:00-8:00 p.m.
District 2, Councilor Baca
Los Duranes Community Center
2920 Leopoldo Rd. NW
Albuquerque, NM 87104

Wednesday, May 8, 6:00-8:00 p.m.
District 6, Councilor Rogers
International District Library
76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NM 8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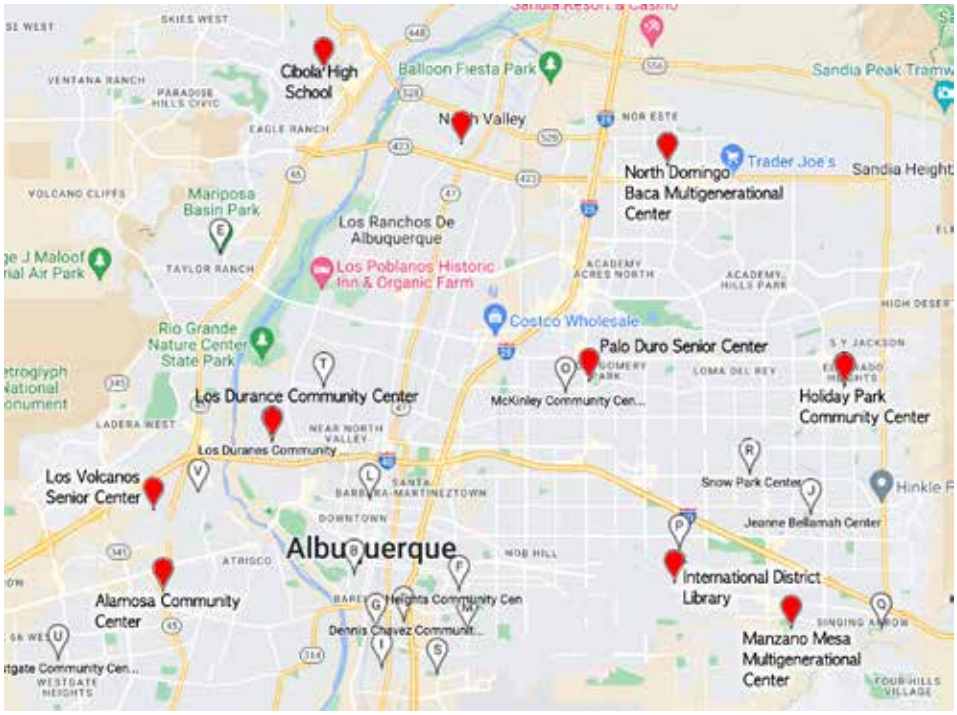
Tuesday, May 21, 5:30-7:30 p.m.
District 9, Councilor Grout
Manzano Mesa Multigenerational Center
501 Elizabeth Street SE
Albuquerque, NM 87105

Wednesday, May 22, 5:30-7:30 p.m.
District 4, Councilor Bassan
North Domingo Baca Multigenerational Center
7521 Carmel Avenue NE
Albuquerque, NM 87113

Thursday, May 23, 5:30-7:30 p.m.
District 1, Councilor Sanchez
Los Volcanes Senior Center
6500 Los Volcanes Rd NW
Albuquerque, NM 87121

Tuesday, May 28, 5:30-7:30 p.m.
District 5, Councilor Lewis
Cibola High School
1510 Ellison Drive NW
Albuquerque, NM 87114

Thursday, May 30, 5:30-7:30 p.m.
District 8, Councilor Champine
Holiday Park Community Center
11710 Comanche Road NE
Albuquerque, NM 87111



국내외 뉴스

2024년 3-4월 주요 뉴스

3월 7일 - **스웨덴 NATO 가입**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스웨덴이 가입했다.

3월15일 - **러시아 대통령 선거**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현직 블라디미르 푸틴이 5선으로 재선 되었다.

3월 26일 -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선이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Francis Scott Key Bridge)와 충돌하여 다리가

사고전의 다리

컨테이너선과 붕괴된 다리

완전히 붕괴되고 6명이 사망했다.

4월 1일 -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격**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해 16명이 사망했다.

4월 8일 **개기일식**
미 남서부와 미국 중부, 캐나다 남동부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4월 8일 - **한국 정찰위성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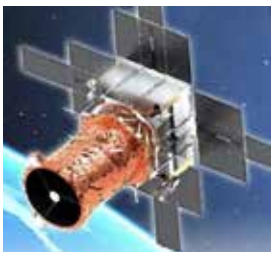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대한민국의 2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 발사체는 지난해 12월의 1호기와 같은 스페이스 X사의 팰콘-9 발사체를 이용했다.

4월 10일 - **한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6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미래는 108석에 그쳤다.

4월 13일 -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 시리아 이란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4월 19일 - **이란의 미사일 공격 대응**
이스라엘은 4월 13일 공격에 대응하여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

4월24일- **한국 초소형 군집위성**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초소형군집위성은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지원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4월25일 - **950억달러 지원 예산통과**
미 의회를 통과한 95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포탄 등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초 비밀리에 장거리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넘겼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러시아 군비행장 등을 공격하는데 이를 사용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The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약자인 에이태킴스는 사거리가 300㎞에 달한다. 여태까지 제공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165㎞로 제한됐었다.

4월 29일 - **한국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윤석열 정부의 첫 영수회담이 열렸다.

4월 18~29일 - **대학가 반전 시위**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일부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는 대학 측이 이날 시위대측에 29일 오후 2시까지 해산하라는 최종 시한을 통첩했다.
반전 시위가 커지면서 로스앤젤러스 USC에서는 금년 졸업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칼럼

새로운 변화를 기대를 하면서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장로를 추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한 장로님께서 식사 중에 말씀하셨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은퇴 연령이 지나신 연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후 토요 새벽예배를 마치고 다른 장로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아마도 장로님들께서는 우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일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펜데믹이 지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펜데믹 기간에는 모두가 폐쇄적인 생활을 해야 했기에 교회는 아주 기본적인 모양만 가지고 버텼지요.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빠짐없이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를 드려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펜데믹은 벌써 지나갔는데 우리교회는 여전히 기본적인 조직만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성경말씀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기본적인 조직들은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주전부터 공천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임원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임원 추천을 해왔습니다. 공천위원회는 각 속회의 속장이나 인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지요. 그리고 선출된 공천위원들은 공천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해야 할 다른 부서들과 그 부서에서 일할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교육도 했습니다.

새 임원 추대 과정에서 나온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임원이 되어야 합니다"였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또는 주일 예배 출석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지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임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임원으로 세우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임원 추대를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임원을 추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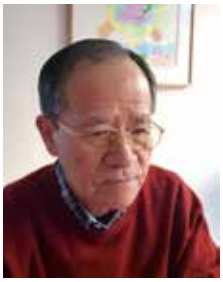
아쉬운 사실은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군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간 교인들도 있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여전히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또는 출석 않는 교인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제한된 인원수로 여러 부서에서 일할 임원들을 추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벌써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신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었기에 "사도"라 부르는 제자들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활동을 하면서 "집사"란 임원들을 세웠지요. 사도들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오늘날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장로"라는 임원을 세워서 각 교회를 목양하게 했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교회들을 치리하는 "감독"이라는 임원도 세웠지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 임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임원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어떠한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임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군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임원들이 헌신적으로 충성했듯이 우리 교회에 새로 세워진 임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우리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

수필

제3의 눈



이 정 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직관直觀은 판단이나 추리 등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사고 능력으로, 감각기에 의하여 직접 외계의 사물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얻는 것이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은 통찰이라고 한다.

척추 동물의 진화 초기에는 양미간에 눈과 비슷한 두정안頭頂眼이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내부로 들어가 분비선이 되었다. 그 송과선은 대뇌 밑 간뇌의 시상 상부에 있으며, 쌀 한 톨 만한 크기의 내분비선으로 지각, 인지, 영적 교감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송과선이 정신의 근원으로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다.

랜덤하우스 영어 대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 third eye (제3의 눈) 에는 pineal eye (송과안) 를 찾아보라는 말과 함께 뜻은 intuition (직관) 과 같다고 설명되어 있다.
힌두 교도의 의학 및 장수 비결에는 송과선과 영적 경험 사이의 연관성이 언급되었고,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는 송과선이 태양신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요가에서는 사람의 몸에 여섯 개의 에너지 센터 (chakra) 가 분포되어 있으며, 각각이 내분비선과 연결되어 건강과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 그 중의 하나인 '제3의 눈 차크라' 는 미간에 위치하며, 뇌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조그마한 송과선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예언자나 신비론자들은 송과선이 지혜, 통찰력, 영적 결합 등을 관장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학자들은 송과선이 수면과 불면의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관일 뿐이라고 여긴다.
송과선은 눈의 망막에서 밝기에 대한 외부의 정보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어두어지면 멜라토닌을 생산하여 방출한다. 나이가 들어 그 안에 석회질이 쌓이면 멜라토닌 생산이 줄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수면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체내의 수치가 높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숨을 들이쉬는 것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몸 안에 받아들인다. 이어지는 최초의 날숨과 함께 자신의 일부를 세상에 돌려준다. 호흡은 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본질의 구성 인자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지속하게 만들고, 종지함으로써 생명의 종말을 고한다.
우주 공간의 기운과 사람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호흡 운동은 늑간근과 횡격막의 운동이며, 주로 늑골의 운동에 의하여 행해진다. 들숨은 전신의 활동력을 높이는 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날숨은 그 반대 작용을 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모든 일이 말썽 없이 예정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숨을 고르게 쉰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 숨이 거칠어진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쉬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 들고 나는 숨에 정신을 집중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진다.

명상 테크닉의 요체는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리는 방법이다.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호흡이다. 일상의 호흡은 늑골의 운동에 의한 흉식 호흡이다. 그러나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는 횡격막의 신축에 의하여 아랫배를 내밀었다 당겼다 하는 복식 호흡을 익혀야 한다.

복식 호흡은 심호흡이어서 공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폐에 드나들게 한다. 폐활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생명력을 가슴에서 아랫배로 내려 몸의 중심을 잡아 준다. 몸의 중심이 잡히면 마음이 안정을 얻어 육체적 및 정신적

<13 페이지로 계속>

선 교

WCC는 왜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일까?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Chaplain, Los Alamos
Medical Center

먼저 WCC에 관해서 서술코자 합니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로서 세계 교회 협의회이며 골짜는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음모론이 숨어 있으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세계 평화를 외치며 온 세계를 구원하자는 좋은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WCC의 주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음 전도 안 한다. 2. 동성애 찬성. 3. 공산주의 사회주의 용납. 4. 종교 통합 주의 5.선교 무용론 6. 사탄의 속임수로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누가 아무렇게 하여 너희가 미혹 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리라” 유대교에서는 이교로 타락하는 것을 가리켜 배도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종말시대 말세에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종말에 나타날 적대자로서 멸망의 가증한것 (마24:15) 또는 적그리스도(요한일서 2장:18)를 말하며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말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온 세계 120 국가에 총 350 교회가 WCC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초로 1938년에 영국 Oxford에서 100 여개의 교회들이 모여 WCC 창립되었지만, 세계 2차 대전으로 연기되었으며 오늘날의 유럽의 기독교는 전멸하다시피 하여 2%만이 기독교인이고 이슬람교가 장악하였으니 너무나도 비통한 일입니다.
1975년 아프리카 Kenya에서 세계종교 평화 기도회가 열었는데 Roman Catholic 교황은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미국의 Billy Graham은 예수를 몰라도 구원받는다 고 하며 로마 교황을 우대하는 것을 볼 때 그도 기독교에서 배도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13년 10월에 WCC 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을 때 한국교회 (주로 대형 교회) 80% 가 여기에 가담하여 판을 쳤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 배도, 배교 (Betrayal, Rebellion)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종말 시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가로 이스라엘 타락, 멸망의 배경을 이뤘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13장 16절에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적인 배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력이 강대하였지만, 말년에 아버지 다윗왕의 뜻을 본받지 못하고 19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써있습니다. 배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샤"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죄”를 가르치는데 정치적인 의미로는 반역(rebellion, betrayal)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왕의 범죄로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양분되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Assyria) 에게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고 남 유다는 바벨론(Babylon)에 패망되어 가는 불행을 맞보게 됩니다.
28~29절에 여로보암 왕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뱃엘(Bethel) 과 단(Dan)에 세우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한 것도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드리는것 과 유사합니다.(출애굽기 32장 4~6절)
신약의 디모데 전서 4장은 큰 배교 (The great Apostacy) 를 말하는 것으로써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 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결국 WCC는 말세 종말 시대의 현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곧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이 되는 휴거 신부의 대망의 꿈을 꾸는 왕의 신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New Mexico 에서 신경일목사 ■

칼럼

거룩한 입맞춤

나정용
뉴져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후 '좋았다' 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고 더불어 함께 사는 가정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과 은혜의 창조질서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홀로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고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은 홀로 외톨이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뿌리가 깊지 못해 오래 지속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훈련을 배제함으로 사단과 마귀의 시험과 꼬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며, 축복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야 비로소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의미있는 삶이 창출되는 법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어설픈 철학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다운 기쁨과 감동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때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찬 형제자매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롬16:16) 그것은 서로의 영이 하나되는 거룩한 내적인 모습의 외적인 표현 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음을 강조하는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주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고개에서 그 '거룩한 입맞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돌변(Radical Change)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잡아 감금하고 죽이려 했던 그! 그가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형제 자매들에게 세심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위로하고 문안 하였습니다. 서슬이 퍼렇던 그가 변하여 지극히 다정다감하게 되었습니다. 롬 16:1-16 안에 모두 18번이나 '문안' 하였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의 문안은 질적으로 다른 문안 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에 '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과 서로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라는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의 사랑과 존중을 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 되라는 높은 뜻 말 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함께'하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껴 줄 수 밖에 없는 존재들 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전 5:23 -28)

서로가 받은바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가득히 전하는 인사 모두가 '거룩한 입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려 끝까지 애를 쓰시나, 아담은 거만하게 그리고 성의없이 억지로 반응하고 있는 천제 화가며,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그림(천지창조)속에서 두 입맞춤을 보는데, 하나는 '거룩한 입맞춤'이요, 다른 하나는 '거만한, 또는 무성의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초기 전도자(Circuit Rider)들은 그 '거룩한 입맞춤'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위해 비바람을 뚫고, 눈 보라를 헤치며 말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무성의 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거룩한

(13페이지로 계속)

수 필

그륵 할머니의 한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소설 '혼불'의 배경지 남원군 사매면 노봉마을. 지금은 사라진 노봉마을 노봉서원! (노봉서원은 1649년, 인조 27년. 나라에서 임금의 친필 현판과 책노비 토지를 하사받는 등 나라의 후원을 받는 서원, 사액서원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없어진 후 자금은 빈터에 주춧돌만 남아있다) 그 배경은 사라져 흔적조차 없으나 저자 최명희는 조선왕조 오백 년을 흘렀던 세월의 풍조와 냄새를 그 섬세한 기록으로 여태까지 제대로 전하고 있었다. 역사의 명을 그 누가 계산할 수 있으랴!

그 기가 배어 흐름 직한 사매면 논길을 따라 한참이나 들어갔다. 온통 논밭뿐인 그 논바닥 한 가운데에는 잘 정리되고 다듬어진 학교 하나가 떨름,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개교 70주년 되었다는 용북중학교였다. 이론이 체계 잡힌 높은 대학 강단을 떠나서 이 농촌 중학교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민 목사의 호의로 달포를 그 기숙사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다.

사면이 온통 논밭뿐인 이곳에서 그 숱한 크고 작은 광풍 같은 세월들을 어찌다 견디고 70년을 버티어 냈을까? 분명 세대를 넘어 목숨을 담보한 누군가의 사명이었을 터, 과연 사명이란 일의 귀천이나 높낮이, 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인가 보다.

논두렁 저만치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기와집, 함석지붕 처마 밑에는 앞 마루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허름한 울타리를 따라서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듯 가지런히 쌓여진 장작이며 널판지들, 잔뜩 얽힌 철사 뭉치, 찢어진 고무 함지박까지 절대 따로 헤어질 수 없다는 듯 엉겨 붙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말이 시골이지 집집마다 아끼고 모시는 듯한 씀 직한 자동차가 한 대씩 집 앞에 대기 중인가 하면 또 제법 심각한 골다골증 증상인 듯한 스쿠터도 대기 중이었다.

앗싸. 허리 확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얼굴만 치켜드시고 나팔꽃 덩굴진 싸릿문을 제치고 등장. 할머니 어기죽 걸음에 맞추어 제법 나이 들어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오랜 부관인 듯 어슬렁 뒤를 따르다가 낯선 우리를 보더니 쾅쾅 짖어댄다. 그게 제 사명이어서 제 사명 다하겠다는 것인가 본데, 할머니께서 들고 나오시던 소쿠리를 냅다 저으시니 강아지가 알아들었다는 듯 짖기를 멈춘다.

"안녕하세요? 아이구, 부지런도 하시네요. 어르신! 이렇게 일찍!"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그저 지나면서 드리는 인사였을 뿐인데,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다.

"뭐 그륵이 마뜩잖아서 이걸 들고 나왔네." 하신다.

들고 나오신 소쿠리는 말이 그륵이지 구멍이 뻐엉~뻥 뚫려서 하늘이 훤히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시골 소쿠리가 다 저런 거겠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심히 지나치는데. 노인께서는 새삼 그 소쿠리가 그냥 만만하셨던 것일까.

할머니의 머리카락 빠지듯 가로줄 세로결이 거의 빠져버린 엉성한 소쿠리 - 할머니의 '그륵' 은 우리가 말하는 '그릇'이었다. '그륵' 이 아니고 '그릇'이 맞는 말이지만, 노인의 그 볼품없는 엉성한 소쿠리 '그륵' 은 함부로 교정할 수 없는, 숱한 세월을 할머니와 함께 해 온 괄시할 수 없는 동행이었다!

아, 바로 그때로 부터였다. 딱히 볼 일 없어도 궁금해서 오게 되고 또 돌아가는 길엔 절대로 빈손으로 가는 법 없다는 융숭한 오일장 얘기로부터 해서,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이야기, 오랜 가뭄마다 애태우는 이야기, 싱글벙글 마당쇠 노 서방이 첫딸 보던 이야기, 홍길동 씨 담 넘어 다니던 동화 같은 이야기, 조석으로 변하는 헐레벌떡 현실 속 에서도 쉬이 요동치 아니하고 분별을 살아내는 촌노들의 순박한 삶 이야기…바로 그런 것들이 노인의 그륵에서 풀풀 새어 나온다.

…할머니께서는 7살 때부터 밭 일을 하셨단다. 철 따라 달래 씀바귀 쑥 무말랭이 호박꼬지 고추 고사리 취나물 같은 산채들을 오일장에 내다 팔아서 만든 돈 십만원을 년 전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때 성금으로 보내 달라고 면사무소에 바쳤단다. 없이 사느라고 맨날 이러쿵저러쿵 남의 신세만 지고 좋은 일 한번 못 해보고 산 것이 '한'이 되어 조금이나마 보탰더니 왼 걸 심(힘)이 생겨 일할 만하시다는 거였다.

아마도 할머니의 이 텃밭은 하늘을 두루 숨 쉬게 하는 탯줄이었나 보다. 무엇에든 밟히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지렁이 같은 미물들에게서조차 파헤쳐지는 텃밭!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품어 새 생명으로 태동 시키는 땅의 신비!
그랬다. 이 신비는 우리가 이제껏 배워 온 바 마땅히 흘러가야 할 도리였다. 그러나 이 도리를 그 누구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이 어려운 도리들을 살아 냄으로 그 권세를 유유히 행사하는 땅 냄새에 취하느라 할머니 허리는 저렇게 굽어지신 것일까?

무엇에게나 밟히며 심지어 보잘것없고 귀찮고 하찮은 미물들도 덮어주고 품어주어 생존의 어덕이 되어주는 땅이 살아내는 삶의 도리들! 그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챙겨 다듬으며 지경을 지켜온 것을 혹! 혹! 너는 알겠느냐?고 묻는 듯하니 ,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늘 상 질문(?)처럼 귀에 걸려있던
'자고로 마을은 늘 보통 사람이 지켜왔단다' 가 번쩍!
뭣에 찔린 듯 들킨 듯 공연히 떨떠름 머쓱 거시기 해짐은 어 찜일까!
점점 계산적이고 경쟁적 세상인심에 밀리고 때로는 부당한 혼란 속에서도 참 훈훈한 삶을 담아 나르는 '그륵' - 맨날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무력해지는 '그릇' 들에게 진정 수고의 해석을 짚어주는 '그륵' 할머니의 한!
문 닫은 폐광에서 금맥을 찾은 듯 하다.
그럴지라도 엄청 빨라진 교통수단과 대형 마켓의 출현으로 혹이나 찬밥 될세라, 왕년의 푸짐했던 한바탕이 잊혀질세라 이 오일장에서 라야 볼 수 있는 흙내 나는 흥과 정, 무명 구도자의 녹슨 목청도 너그러이 용납되는 인심을 홍보하듯 동분서주 하시는 그륵 할머니 품에서는 그러나!
아니 그 와중에서도, 할렐루야!
풋풋한 텃밭과 떠드레 오일장을 오가시는 동안 씨 알맹이 '한' 하나가 영글고 있었으니… 그륵 할머니는 과연 저 높은 하늘의 소리를 이 작은 텃밭에서 들으셨단 말일까?! 아뿔싸! 오늘은 언감생심 엄청 한참 먼 것만 같던 하늘나라를 실습하는 재수생이었다. ■

거룩한 입맞춤

(11 페이지에서 계속)

입맞춤'의 표상 이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였고 피곤 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의 뜨거운 감격이 불덩이된 가슴을 부여 안고 복음을 전하여, 우체국이 없는 마을은 있어도 감리교회 없는 마을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거룩한 입맞춤의 뜨거운 감격이 가슴 한복판에 불덩이 되어 목숨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공산 치하의 여러나라에서 성장하는 지하교회 지도자와 교인들 입니다. 마치 초대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의 뒤를 따르는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맞춤'의 감동과 감격 넘치는 삶을 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에야 비로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의 기대치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방언과 은사는 없어도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저들도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최고 수준의 공동체 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요 멧세지 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 건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 입니다. ■

제3의 눈

(9 페이지에서 계속)

으로 편안하고 고요해 진다.

복식 호흡을 단전 호흡이라고도 한다. 단전은 배꼽 아래 약 5cm 되는 곳이다. 숨을 고르게 쉬되 배의 근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과 함께 드나드는 기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쉬면서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이다. 들이쉴 때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청정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 나간다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정통적인 심신 수련법인 국선도를 연단하여 심신의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다. 리듬에 맞춰 갖가지 동작을 취하면서 정신을 단전에 집중하는 수련이다. 연수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걸으면 몸이 가벼워서 날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운이 좋아 국선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의 성자 Vethathiri를 만나 명상 기법을 배웠다. 상당한 부분이 국선도의 가르침과 동일해서 알아듣기 어렵지는 않았다.

국선도를 계속해서 수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단전 호흡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계속한다. 베타티리 성자가 검지로 미간의 제3의 눈 부위를 눌러 주면서,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여 진동이나 열기가 퍼지는 듯한 미세한 느낌을 맛보라던 오십여 년 전의 일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났다.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르게 쉬면서 양미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려고 애쓰지만 느낌은 그저 가냘프기만 하다. 그래도 그 수련은 깜박 잊는 일을 줄여 주고, 수면을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성경

기독교 윤리 (5)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의 복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의 산상수훈의 네번째 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주리고 목마른 것은 그냥 약간의 배고픔과 약간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물이 귀하고 여행이 힘든 세상에 살았기에 그들은 주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갈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물을 간절히 찾는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아주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에 주리고 목이 마른가? 둘째는 의는 무엇인가? 세째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갈망

주리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갈망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시편 42:1-2).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 사는 사슴은 녹지가 많은 지역의 사슴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사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슴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갈급하며 갈망합니다. 시인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주실 수 있기에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네번째 복인 의는 8번째 복과도 연결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10).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는 '차디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쉬네' 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서 가장 중요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의가 다이아몬드라면, 이 다이아몬드같은 의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다이몬드처럼 빛나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는 첫번째 법정적인 의 입니다. 법정적인 의미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주시는 마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칭의 (justification)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으로 지켜서 노력해서 얻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의의 두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기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은 다시 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너희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여야 하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

다 서기관보다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의라면, 너희의 의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동기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의 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의의 세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의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적으로 지키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기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미치기는 의가 없기에 욕을 먹습니다.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배부른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07편 8-9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배부름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할 때, 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결코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종말의 그날, 참된 배부름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표지그림 이야기

“우리 60살에 산티아고 순례가자”

김숙희
(Suki Kim)
민화 화가

슬픔과 걱정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준 한 마디는 적잖은 위로를 안겨 주었다. 일년 선고 받았던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 체 시간이 흘렀고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친구와의 만남은 산티아고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는그녀의 개천 길을 걸으면서 희망의 불씨가 커졌다. 불교인이라는 코스프레를 한 나는 성지로 향하는 길의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스튜디오 뒤 편 희고 평평한 자갈을 깔아 상상의 순례길을 만들어본다. 매일 깔려지는 자갈은 며칠이 지나자 제법 산책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길을 공상하며 지면에 한 그루씩 모란을 심어본다.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와 노을도 초대해 그림 정원을 꾸며본다. 언젠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

예배/기도

기도문

4월14일 주일예배에서의 K 권 사님의 대표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 하여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찾아온 저희들 두팔 벌리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배부를 기름진 좋은 양식 준비해 주심을 갑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죄들, 해야할일을 하지않고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한 죄 이루 다 샐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 이겨 승리 하는 주의 군병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글로발 감리교단에 속한 새 교회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말씀에 기초한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빛과, 진리로 가득한 영적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교회가 8월달에 김동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계획중인데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 숨기었던 세계를 보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해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수가 흐르고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이사야 35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로서 새 임원들을 뽑습니다. 각 분야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데로 주의 일군들을 뽑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이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를 용서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인본 주의적 교육과 부패된 정치, 사회, 문화, 종교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 적들이 열린 국경을 통해 들어와 파괴하며 또 파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남은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 주시고 미국이 다시 여호와를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11월에 있을 대선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화 감동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성도의 길로 인도 하시며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신 주님,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응답 하시고 급하게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쒸우시고 좋은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주님, 믿는자들을 구원 하시는 주님,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다음 1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 가도록 교회의 머리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여행 후기

자메이카 여름 이야기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 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 Come to the Jamaica…."
자메이카로 오세요….레게 팝 음악의 나라…블루마운틴 커피의 생산 국가…그리고 매 올림픽마다 육상권의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달리는 나라…자메이카는 카리브해안 섬 중 3번째로 큰 섬나라이다. 높은 산과 울창한 숲, 계곡 그리고 선조들의 슬픈 역사를 품고 있다. 1494년 5월4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2차 탐험 항해를 하다가 이 섬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표현했다.
"눈에 보이는 아주 선명한 하늘과 계곡, 들판들이 하늘과 맞 닿는 듯 평화로워 보이는 섬…."자메이카 원주민은 남 아프리카 타이노 도착민들었으며 스페인과 영국의 점령으로 지배되면서 더욱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되어 이곳에 팔려 왔다. 농장지 주인들은 정치권을 두고 이들을 노예로 부리며 많은 농작물, 사탕수수, 보리, 거피 등을 수확하게 되었으며 노예와 함께 유럽 서방 국가에 수출 또는 판매되는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로 인해 농장 인들은 정부의 힘을 얻고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노예들은 힘든 노동을 강요당했고,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거나 가족을 잃는 슬픈 일들이 생겨나자 이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가서 은둔생활을 시작하며 근신이 생계를 이어나갔다.

산속 은둔생활 중 가장 힘든 건 식생활…. 바다가 아닌 산이다 보니 불을 때거나 연기가 나면 금세 발견되어 전 가족이 죽음들 당하는 일들이 생기자, 이들은 새로운 개발을 해내게 되었다. 깊은 산중에는 많은 향신료의 잎들과 뿌리, 열매가 많아 산돼지나 닭을 잡아 요리에 이용했으며, 불을 때서 연기가 나지 않고도 익힐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냈다. 고기에 갖가지 양념을 뿌려 재운 뒤에 커다란 잎새를 이용해 올려놓고 땅속에 묻어 열을 가하여 익히는 비법은 오늘날 그 유명한 쟈메이칸 저크(Jerk)의 비밀 요리법이 됐다.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새콤한 미각의 맛은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BBQ 치킨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한다.

1962년 자메이카 정부는 힘든 투쟁을 끝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오랜 영국의 식민지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빈부의 차기 더욱 심해져서 갱단과 범죄가 날로 늘어나기만 했다. 수많은 세월 아픔의 호소이었을까? 오랜 세월 정치권과 국민들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불만과 가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응했다. 가난과 함께 힘든 생활을 보내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래와 축구를 하며 마음을 달래왔으며 드디어 레게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레게음악의 황제 " 밥 말리(Bob Marley ")는 독특한 율곡으로 수많은 청춘남녀들을 사회변화에 동요하는 경쾌하고 빠른 템포로 그들을 유인했으며, 노래와 춤을 추는 동시에 명성을 얻으며 전 세계인들을 흔들어 놓았다. 그의 예술성은 독보적이었으며 그래미상 이상만큼이나 세계음악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밥 말리(Bob Marley)는 1945년 2월 6일 자메이카 나인 마일(Nine Mile)에서 영국 백인계의 아버지(Cedella Booker) 와 자메이카 흑인계의 어머니(Norval Marley)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6세 되던 해 부친은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머니 혼자서 양육해 왔으며, 그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달래왔다. 1963년 피터 토시와 리빙스턴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Bob Marley & Wailers 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더욱 명성이 떨쳐졌고, 마침내 미국 음반 차트 1위에 올랐으며, 그

의 음악은 더욱더 전파됐다. 그중의 ” ONE LOVE….”, “사랑은 하나”의 감미로운 노래로 젊은 남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그의 천재 음악성을 알리게 됐다. 그의 히트곡으로는”NO WOMAN, NO CRY” “THREE LITTLE BIRDS”…등 이었다. 그의 음악은 자메이카 문화와 정체성, 마리화나 합법화 상징이었으며, 가장 크게 히트한 앨범”Legend “는 그가 작고하고 난 후 1984년에 발매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레게 앨범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36세, 젊은 나이로 흑색종 암을 앓다가 작고했다. 세계를 널리 알리는 그의 음악을 공헌함으로써 자메이칸 정부는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그 밖에도 자메이카는 연속 육상과 축구도 국민 운동과 같이 부각되고 있다. 가장 명성이 나 있는 우사인 볼트는 3번 연속 육상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니, 자메이카 사람들은 태생이 달리는 민족이라 불린다. 육상은 자메이카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기도 하다, 세계 어느 상위권의 육상 또는 축구팀에는 늘 자메이카 육상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역사를 알고 가면 눈으로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 산바람이 불면 그 어디선가 레게 음악이 들려진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을 중심으로 몬티고베이, 오초리오, 리그리얼 등 휴양지에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긴다. 킹스턴은 자메이카 수도이며, 높은 빌딩과 문화교류센터 역사박물관, 여행 정보, 기념관 그리고 자메이카의 전통 맛집들이 많으며, 특히 밥 말리의 박물관은 레게 가수의 전 집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세계적인 3대 커피의 농장인, 블루 마운틴의 산책로와 폭포들이 있어 커피 재배지에서 직접 볶아낸 가장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머리를 갈래갈래 손으로 엮어 길게 내려트린 이 지방의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한다. 블루마운틴의 츄렉킹 코스는 물론 커피의 농장지에 들려 빨갛게 매달린 커피를 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커피의 가장 좋은 맛은 3가지…. 단맛, 신맛, 쓴맛이 동시에 맛볼 수 있어야 최상급의 커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커피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린 이제야 제대로 커피의 향과 맛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이곳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팔 수 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곳곳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 그 옛날 할머니 집에 가는 시골길에서 가마니 솟밥을 하기 위해 쌀을 수확하고 남은 볏단을 때우는 냄새라 할까? 배낭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킹스턴은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하니 항상 투어 회사를 이용한 가이드와 다니도록 하자.

몬티고베이는 자메이카를 입국하는 국제공항이며 이곳 휴양지에서는 도시에 비해 조용한 마을이어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머문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크렛 리조트는 마주 보고 있는 언덕의 저녁 불빛과 바다의 석양이 어울려 저녁 만찬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다의 각종 레저스포츠를 이용하고 정원과 수영장 곳곳에서 구워 내는 유명한 자메이칸 저크 파이를 먹어보자. 우리 입맛에 꼭 맞는 특식 파이이다. 한나절 따가운 햇살에도 해양스포츠는 젊은이들에게 는 최고의 인기…. 청록색 바다 위에 서 보트를 이용해서 윈 서핑, 서핑, 바나나 보트 등 바다를 체험하자, 달려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화~악 풀 수 있어 좋다.

숨 가쁜 일정이 끝나는 저녁쯤 은 곱게

단장하기에 바쁘다. 풍요로운 자연과 매혹적인 이브닝은 젊은 커플들의 결혼 장소로 제일 유명하다. 오늘만큼은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나의 매력도 발산해 보자… 언제 내가 긴 드레스를 입고 호사스러운 테이블에 앉아 여왕이 되어보라? 그대와 둘, 가족과, 이 순간을 위해 난 콤팩트를 눌러 터치하고 조금은 빨갛게 입술에 바르며, 오늘만큼은 새 날리던 머리도 올리고, 반짝거리는 머리핀도 찔러보자…. 연예인이 따로 있나? 오늘은 내가 연예인… 곱게 차려 입고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 흰 테이블에 앉으니, 어느새 하늘은 벌겋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노을과 보랏빛 조명에 와인은 더 없이 향이 좋다. 고급스러운 프랑스 달팽이 요리와 함께 프랑스산 백포도주를 마셔보는 여유로움, 바다로 넘어가는 노을과 까만 예복을 입고 연주하는 손끝에는 그들의 영혼이 깃든 연주가 시작되고 포도주잔에 부은 백포도주가 떨리기에 충분했다.

몬티고 베이 마을에서 약 2시간… 북쪽으로는 세인트 앤이라는 오초리오. 항구마을이 있다. 콜럼버스가 처음 육지로 들어온 곳을 기념하기 위해 공원을 만들었으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옛 건물이 남아있는 곳이다. 오초리오에서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과 폭포가 있으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Duns River (던스리버) 가 유명하다. 이 폭포는 약 180피트 높이에 600피트 길이로 거대한 폭포가 바위 층 계단으로 떨어지며 백사장 해변가로 이어져 내려간다. 사람들은 자연폭포의 계단을 밟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릴을 즐긴다. 자메이카의 최고의 보물이며 인기 절정 1위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꼭 가봐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또한 높은 산을 안전장치를 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카누피 투어는 자연폭포와 강줄기 등을 내려오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패키지 상품 중 인기 가 높으며, 대부분의 관광회사의 상품은 이곳이 가장 많다, 계곡을 따라…폭포를 따라…. 산행 또는 강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튜브 관광과 각종 물놀이 들판, 지프를 타고 맘껏 달려보는 정글 투어, 커피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 견학 그리고 옛 시절 저크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자메이칸 전통음식들, 플랜테이션 관광 등 …또한, 재마이 칸 옛선조들의 농장지였던 곳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 설명과 함께 산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지냈는지를 느껴볼 수 있다. 더욱이 저크 음식도 맛볼 수 있어 행복하다.

복잡한 수도 킹스턴. 국제공항 몬티고 베이…. 항구마을과 산이 어울린 계곡의 마을 오초리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니그리얼(Negril)은 세븐마일 비치(Seven Mile Beach)로 유명한 휴양지가 있다. 바람도 없이 잔잔한 푸른 바다와 매끄러운 백색 모래사장은 보는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바다가 아름다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해수욕을 한다는 누두 비치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다. 자메이카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파티하며 사탕수수에서 빼낸 럼 주 또는 맥주를 마시면서 노을에 맞춰 레게를 하면 밤을 지새운다. 세븐 마일 비치가 아름다워 신혼여행 상품이 인기이며, 이곳에서 가족과 절 친구 들과의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각기 리조트에 따라 백사장과 정원은 최대한 자연을 살렸고, 초원엔 공작새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지상낙원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리조트는 모든 식사 및 주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고의 만찬 코스를 준비하며 젊은 커플들과 연세 드신 커플들을 위한 낭만 이브닝 을 특별히 준비한다.

또한 저녁 리조트에서는 매일 밤 다양한 축제와 훼스티발을 하면서 자메이카의 자부심을 알리는 노래와 춤을 곁들여 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해변에서의 노을 파티를 위한 바비큐로 어디서든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든다. 다소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멜로와 분위기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이국적인 향기는 카리브해를 다녀보지만 매번 다른 느낌이다.

자메이카…. 산과 바다가 풍성하며…. 옛날이야기가 들려주는 문화와 함께해서 더욱이 가슴에 와닿는 나라이다. 여행을 하면서 그냥 가기보다는 알고 가면 몇 배 더 즐길 수 있고 추억 만들기에 에너지가 더욱 솟아난다. 행복이 별거인가? 만족이 행복의 원인이 아닐까 싶다. 지금 내가 사는 여기가 아닌 몇 시간 뒤의 내 타지의 생활 중. 맛있게 먹고, 눈으로 보고, 편하게 자며 건강한 순간이 행복인 듯하다.

바쁜 이민 생활,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들…힘들게 일하면서 한마디 말없이 고개만 숙이며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들, 자녀 훈육하며 멋과 여자의 일생을 뒤로한 우리의 어머니들, 시간 없고, 돈 벌어서 나중에 가신다고 양보만 하셨던 분들, 이제 마음과 여건이 생겨 떠나보는 소중한 시간을 꼭 잊지 못할 감동과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린다. ■

생활영어

영어이야기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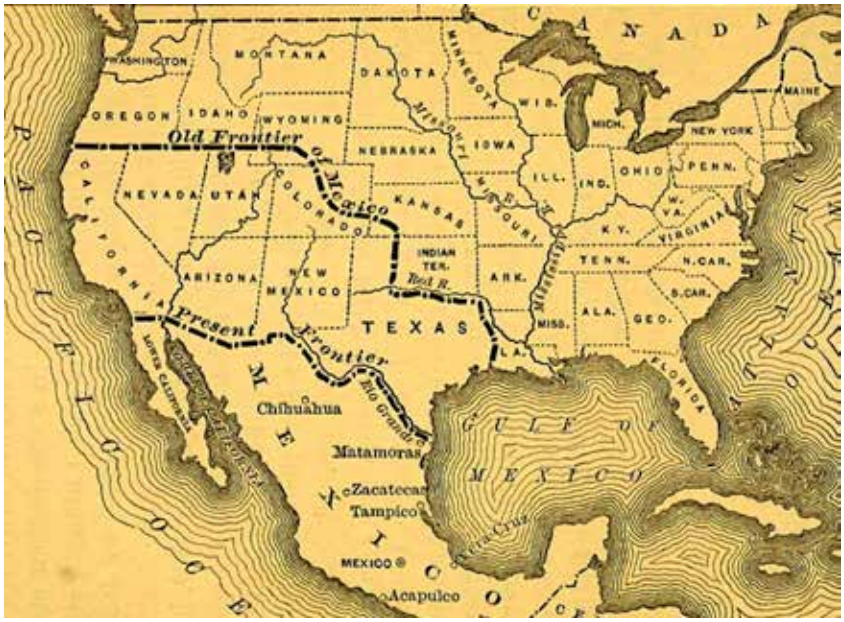
Brief New Mexico History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Land of Enchantment"로 알려진 New Mexico는 Spain탐험대가 발을 디딘 1540년이전부터 오랫 동안 Native American인 인디언들이 살고있었습니다. "Land of Enchantment"는 New Mexico정부가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인디안들의 문화와 풍습을 알리기위한 관광산업의 일환

으로 "Land of Enchantment", 즉 "매혹의 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New Mexico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면, New Mexico란 주(州)이름에서 보듯이 예전엔 Mexico의 영토였습니다. 1848년 미국과 Mexico 간 전쟁(Mexican-American War or The U.S.-Mexican War)이 일어나기 전에는, Spain으로부터 1821년 독립한 Mexico의 영토였으며. Mexico는 그전까진 New Spain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의 Texas와 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Nevada, 그리고 Utah와 Colorado의 일부를 포함한 거대 한 지역이 Mexico의 영토였습니다. 그중 Nuevo México (New Mexico)로 불리는 지역이 미국에 편입되면서 Arizona와 New Mexico로 분리되면서 오늘에 이르는데, New Mexico는 예전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셈입니다. 다만 New의 뜻을가진 스페인어 Nuevo가 New로 바뀌었을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license plate)에 "New Mexico USA"라고 표기하여, Mexico 땅이 아니고, 미국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New Mexico는 1912년 1월6일 연방에 가입하여 47번째 주(州)가 되었고, 한달뒤인 1912년 2월14일 Arizona가 48번째 州로 편입되었습니다. 주(州)로 편입되기전엔 이 지역은 New Mexico Territory로 불렸습니다.

신생독립국인 Mexico는 지금의 미국땅이 되어버린 광대한 남서부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릴수 없었습니다. 당시 Mexico 영토인 Texas에는 많은 Anglo-American이 이주해와 Mexico 사람들을 압도하다보니 이들이 Mexico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충돌이 자주생기자 Texas에 이주해 기반을 잡은 숫적으로 우세한 Anglo-American들이 반기를 들고 Texas를 Mexico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1836년 Republic of Texas로 탄생하며, 미국의 28번째 州로 1845년 편입합니다. Mexico는 Texas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양국간의 영토분쟁, 즉 전쟁이 일어날 명분이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Rio Grande강을 Texas와 Mexico간 국경으로 하려고 했고, Mexico는 그보다 훨씬 북쪽에있는 Nueces 강을(315 miles long) 경계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분쟁지역에서 미국측 병사가 죽자 이를 빌미로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1846년 미국과 Mexico 간 전쟁이 벌어져 미국이 Mexico의 수도인 Mexico City를 점령하여, 1848년 Guadalupe Hidalgo 조약을 맺으며 전쟁은 끝납니다. 이때 Mexico는



지금의 California, Nevada, Utah, New Mexico, Arizona, Colorado와 Wyoming일부, Kansas와 Oklahoma 일부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내어 주고 미국으로부터 $1500만불을 받는 동시에, 미국은 Mexico정부가 미국시민에게 진 $325만 불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남부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불법이민자들과의 충돌을 보면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소개된 지도의 점선안 지역이 예전의 Mexico영토입니다. New Mexico와 Arizona는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얻은반면, California를 위시한 Nevada, Utah, Colorado, Wyoming, Kansas, Oklahoma등은 Guadalupe and Hidalgo 조약협상때, Mexico에게 돈을 지불하고 얻은 영토입니다. Mexico나 Arizona는 남북전쟁 당시엔 州가 아니라 영토(territory) 였기에 어느쪽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예를 필요로하는 노동집약 농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New Mexico 주민인 우리들은 Pueblo란 말에 익숙합니다. Spain어로 Pueblo는 마을(village)이란 뜻으로 New Mexico에 공식적으로(federally recognized) 19개의 Pueblo, 즉 공동체(community)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수천년간 살아온 같은 조상과 문화를 이어받은 여러부족으로 각자의 언어와 전통(건축물, 토기(pottery), 직물(weaving), 춤(dance)등)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Pueblo로는 Acoma Pueblo, Taos Pueblo, Zuni Pueblo, Zia Pueblo등이 있으며, Albuquerque 지역을 보면 Casino이름에서 보듯, Sandia Pueblo, Santa Ana Pueblo, Isleta Pueblo, Jemez Pueblo등이 있습니다. 또한 3개의 Apache Tribes와

Navajo Nation이 있습니다. 이들 Pueblos, Apaches, Navajo Nation은 각자 관할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의 법과 치안을 따라야 합니다. 인구가 제일많은 Navajo (2위 Cherokee)는 New Mexico뿐 아니라 Arizona와 Utah에 걸쳐있는데, 서부영화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Monument Valley 가 Navajo Nation관할하에 있습니다.

New Mexico엔 Truth or Consequences란 이상하고 독특한 이름의 마을이 Albuquerque (앨버커키)에서 두시간반정도 2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Las Cruces가기전에 나오는 인구 6,000여명의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온천이 많아 공중탕(Public bath)도 있던 도시로, Hot Springs가 원래 이름이었는데 1950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NBC 라디오의 퀴즈게임이었던 Truth or Consequences 의 진행자였던 Ralph Edwards가 퀴즈쇼 10주년기념으로, 마을이름을 Truth or Consequences로 바꾸면, 그곳에서 10주년방송을 하겠다고하자 Hot Springs주민의 투표로 이름을 바꾸기로 정하여 1950

Ralph Edwards (1956, NBC TV)

년 3월31일 공식으로 이름을 Truth or Conseq-uences로 바꾸는 동시에 그날저녁 그곳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후 매년 5월 첫주말에 Ralph Edwards씨는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Miss Fiesta pageant queen, Chile queen pageant, Parade, Stage show , 그의 이름을 딴 Ralph Edwards 공원에서 Dance 등 축제가 열립니다. Truth or Consequences퀴즈쇼는 제목에서 알수있듯이 질문을 받은 출연자가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면 벌을 주는 game이었습니다.

New Mexico에는 National Park가 두군데 있습니다. Limestone(석회암)으로 여러가지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으로 경이한곳이며 또한 늦은봄부터 가을저녁때 먹이를 찾아 나르는 수천마리의 박쥐떼를 볼수있는 Carlsbad Caverns 와 최초로 핵실험을 한 White Sands 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래가 아니라 석고인 gypsum crystal이 쌓여진 언덕으로 되어있어 Gypsum sand dunes라고 부르는데, 햇볓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도록 하얗습니다. 바람때문에 Dunes(모래언덕)는 항상변합니다. 혹독한 사막 기후이지만 기후에 적응한 식물, 동물들이 산재해 살고있습니다.

New Mexico의 수도인 Santa Fe는 1610년에 정착된 마을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town중 하나인데, Palace of Governors 는 공공건물로서는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건축물도 Pueblo특유의 모서리가 둥글고 지붕은 평편한 Adobe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Taos와 함께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

과학상식

반도체 란 무엇일까 ?

4 편 : Silicon Photonics (실리콘 포토닉스)

이기영
Intel /반도체 제품 개발
연구원
알버커키감리교회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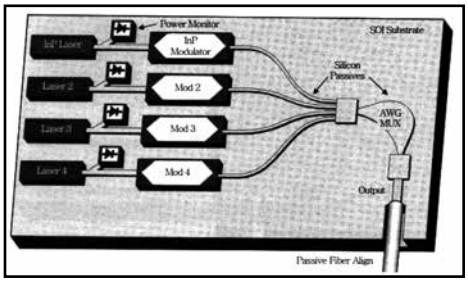
이번에는 2편에서 잠시 언급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 잠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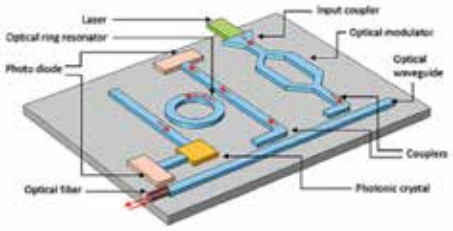
인텔의 리오란쵸(Rio Rancho) 공장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빛(light)을 사용한 통신용 제품으로, 전기신호대신 빛으로 데이타를 전달시키는 광통신용 칩으로서 Silicon Photonics라고 불리는 공정을 사용한 제품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회사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으므로 필요하신분은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www.intel.com).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한줄로 설명하면, 이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명품 두 가지인 실리콘 집적 회로와 반도체 레이저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기술로 만든 칩이다. Silicon Photonics는 인텔의 효율적인 대량 실리콘 제조 기술을 활용하며, 기존 전자 기술보다 더 먼 거리까지도 무선으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그 기술로 만든 칩이다. 물론 인텔이외에도 실리콘 포토닉스기술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음을 밝혀주는 바이며 구글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회사가 있다. Intel Corporation, IBM Corporation, OneChip Photonics Inc., Cisco Systems, Inc., Mellanox Technologies, Inc., Luxtera, Inc., Oracle Corporation, Hamamatsu Photonics K.K., NeoPhotonics Corporation, etc. 많은 회사가 있지만 제품중 약 40%정도가 인텔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는 실리콘 웨이퍼로 어떻게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만드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자료는 INTEL.COM, ETRI.RE.KR, SKHYNIX.CO.KR, MATERIC.OR.KR 등에서 인용 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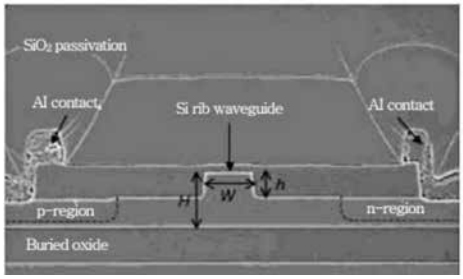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들은 실리콘 포토닉스 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실리콘 광원(레이져, Light Source), 실리콘 Waveguide, 실리콘 변조기 (Modulator), 링 공진기(Ring Resonator), SiGe 광검출기 (Photo Detector), 광다이오오드





(Photo Diode), 커플러 (Coupler) 등이 실리콘 기판(SOI substrate)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Intel에서 제작한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의단면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인용된 ETRI자료에서는 라만 레이저의 단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Silicon Waveguide이다.)

가장 중요한 5개의 소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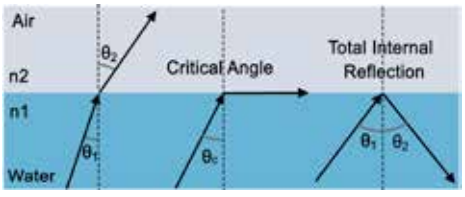
1. Light Sources (광원)

빛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제공할 수단이 필요하다. Silicon Photonics 회로에서 이 역할을 하는 소자가 바로 light source이며 주로 laser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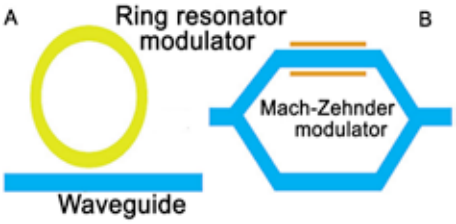
Light source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광회로에는 동시에 많은 광신호가 전달되고 이 신호들은 파장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다른 신호들과의 구별을 위해 일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한다. Silicon은 indirect-band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light source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laser를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InP와 같은 3족과 5족의 화합물 반도체를 silicon에 bonding하여 laser를 생성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Ge을 Silicon 기판위에 성장시키는 것이다. Ge 역시 indirect band gap을 가지지만, Silicon보다 더 작은 band gap을 가지기 때문에 strain을 가해 band 구

조를 변화시켜서 light source로 사용할 수 있다.
부언: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전기소자는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의 이진법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전기선 하나로 동시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지만, 빛은 여러 파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동시에 여러가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2. Waveguide (도파관)
Waveguide는 빛을 원하는 소자까지 이동시키는 길 (또는 관)의 역할을 한다. 알다시피 빛은 직진성이 있으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waveguide가 필요하다. Waveguide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섬유의 원리와 같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하면 매질 간 표면에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 어느 순간 굴절각이 90°가 되고 더 크게 하면 모든 빛이 매질 간 표면에서 반사되는 데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한의 각도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작아지므로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는 더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Silicon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절률이 매우 크므로 waveguide에 사용되기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Silicon을 Waveguide 로 사용을 하며 (intel의 경우), Silicon Nitride(Si_3N_4)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굴절율 및 전반사 도움을 위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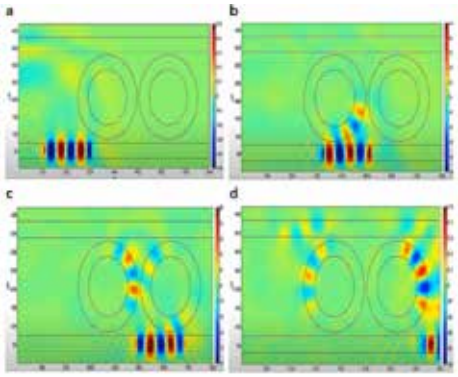


3. Modulator (변조기)
Modulator는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에 맞게 light source에서 나온 일정한 빛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는 소자이다. modulator에는 ring resonator modulator (아래 그림 A)와 Mach-Zehnder modulator(아래 그림 B)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변조기는 Waveguide를 구성하는 silicon의 굴절률을 변화시켜 wave-



guide를 지나는 빛의 위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방법으로 phase modulator를 만들 수 있다.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를 주입하는 방법, MEMS를 이용하는 방법의 세가지가 있다.
Ring resonator 방식의 modulator는 뒤에 설명할 ring resonator와 비슷한 소자로 ring에 phase modulator를 달아 modulation을 하는 방식이며 쉽게 Ring Modulator라고 불리운다. Mach-Zehnder 방식은 빛을 두 갈래로 나누고 한쪽 길에 달린 phase modulator를 이용해 위상을 변화시킨 후 빛을 하나로 모아 modulation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MZM이라고 불리운다. 두 빛의 위상차에 따라 간섭되는 파동이 보강간섭이 일어날지, 상쇄간섭이 일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modulation을 할 수 있다.

4. Ring Resonator (링 공진기)
Ring Resonator는 Waveguide를 통해 전달되는 빛 신호중 원하는 파장의 신호를 필터링하는 소자이다. 그 원리는 ‘공진’인데, 공진이란 물체의 파동이 전달되었을 때 그 물체가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Ring Resonator에서는 각 고리의 크기에 따라 그 고리에 정상파를 형성하는 파장 영역대를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



여 원하는 파장대의 빛을 필터링할 수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아래쪽의 waveguide(아래 두 평행선)에 ring resonator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빛 신호가 들어오면 (a) 위쪽의 waveguide (위의 두 평행선)로 전달하는 것(d)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입력되는 빛 신호(아래쪽의 waveguide) 중 ring resonator와 공진을 일으키는 파장대만 ring resonator가 받아들여 (b, c) 위쪽의 waveguide로 전달하는 것이다.

5. Photodetector(광 검출기)
Photodetector는 빛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소자이다. 저마늄(Ge, Germanium)은 규소(Si, Silicon)에 비해 매우 낮은 band gap을 가지므로 전파를 비롯한 빛 감지에 유리해 Photodetector 소자에 이용된다.
또한 광 신호를 전자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PN접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3, 5족 화합물 반도체를 Silicon 대신 사용된다. 이 화합물은 빛이 감지되었을 때 흡수된 광자가 전자-정공 쌍을 만들도록 하여 전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Silicon Photonics의 기본적인 소자들에 더불어 회로의 목적에 따라 다른 소자들이 사용될 수 있다. 광신호를 다루기 위한 위의 소자들을 활용한 회로를 구상하였다면 이를 실제로 만드는 공정작업이 필요하다. Silicon

photonics 제작 공정도 1-3편에서 소개한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 과정과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지만 그 설계는 전혀 다르다, 즉 Transistor가 없는 반도체 제품이다.
현재 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는 이렇게 생겼으며 이곳에서 다른 비슷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있다.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silicon-photonics/silicon-photonics-overview.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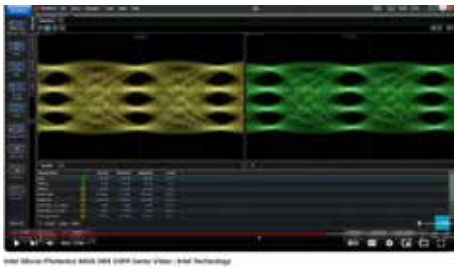
Features (제품 요약)
● Compliant with IEEE 400GBASE-

FR4 optical interface standard and 100G Lambda MSA 400G FR4 optical interface specification for use in 400GbE applications up to 2 km [IEEE 400GBASE-FR4 광 인터페이스 표준 및 100G Lambda MSA 400G FR4 광 인터페이스 사양 준수로 최대 2km의 400GbE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
● Electrical interface compliant with IEEE 802.3bs 400GAUI-8 standard [IEEE 802.3bs 400GAUI-8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인터페이스]
● Compact Type 2 QSFP-DD form factor for high faceplate density in networking equipment and cage backward compatibility with QSFP28 [네트워킹 장비의 높은 페이스플레이트 밀도 및 QSFP28과의 케이지 역호환성을 위한 소형 Type 2 QSFP-DD 폼 팩터]
● Compatibility with single-mode fiber connectors and cable infrastructures [단일 모드 광섬유 커넥터 및 케이블 인프라와의 호환성]
● Operating case temperature range of 0 to 70C [작동 케이스 온도 범위 0 - 70C]
● CMIS-compliant management interface with full module diagnostics and control through I2C [I2C를 통한 전체 모듈 진단 및 제어 기능을 갖춘 CMIS 호환 관리 인터페이스]
● Class 1 Laser [클래스 1 레이저]
쉽게 설명하면 복잡한 랜선없이 위제품을 랜포트 같은 곳에 끼우면, 단거리(2km)내에서 레이저 파장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이다. 아래 그림으로 보면 케이블이 너저분한 왼쪽의 서버룸이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오른쪽의 케이블 없는 깔끔한 서버룸으로 탈바꿈하는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은 구리선 대신 훨씬 가늘고 깔끔한 광섬유(Optical Fibers or Fiber Optics)를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광섬유의 굵기는 8~50um로 가늘며 보호막(피복)을 포함해도 125um의 가는 굵기

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랜선(CAT6)이 6.2mm 인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가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은 구리로 만든 랜케이블과 광섬

유의 차이를 보여주는 같은 비율의 사진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레이저는 클래스 1 레이저이기 인체에 무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클래스 1은 제품

자체가 근원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으로서 주어진 사용조건에서 1 급 노출 방출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방출될 수 없는 제품으로 현재 광 마우스나 CD롬에 사용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제품데모를 하는 동영상에서 가져온것으로 신호(data)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중의 하나이다(아래 초록=입력,위 파랑=출력) 관심이 있는 분은 유튜브링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란다.
2년전 시연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yX_c4s8
이상으로 반도체가 무엇인지, 특히 트랜지스터의 원리 및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한 광통신 제품에 대하여 간략



하게 4회의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언제 다음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깊숙한 공정 또는 최신 동향의 뉴스 같은 것을 소개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

Korean Churches in NM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교회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Ô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주택융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축 개업

Lotus Dumpling House
www.lotusdumplinghouse.com
1807 2nd Street, #35
Santa Fe, NM 87505
Tuesday-Saturday: 10am-8pm
Sunday: 10am-7pm
505-303-3740
Lian 최련(崔蓮)

Hye Young Yoon (윤 혜 영)
Fluent in Korean & English 부 동 산 중 개 인
Hye1231@gmail.com
917-862-1782
Licensed Realto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 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리오란쵸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Lotus Dumpling House
1807 2nd St. #35
Santa Fe
(505-303-3740)
최리엔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4년 5/6 월호 발행일 : 2024. 5. 4 .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광야의 소리 5/6월호

스마트폰으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Voice.kumcabq.com

ICHIBAN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A-1한국식품

韓美 HANMI 韓美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HANMI KOREAN-CHINESE FUSION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M-F 7:00am-6:00pm(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TheGarageNM.com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광야의 소리에
광고를 올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Email
또는 전화 (505)275-9021
(광고담당:신옥주 A-1 Market)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